

2024년 3월 3일(주일) 제1672호

#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 사순절 묵상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 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4-7)

# 기도가 번져라!

## 제4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회

매주 토요일 6시, 웨스트민스터홀

## 2024 상반기 장학금 수여식

### 오늘 찬양예배 시

서울교회 장학회(회장:오윤걸 장로)는 2024년 상반기 장학생을 선발하고,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장학금 수여식을 갖습니다.

선발된 학생들은 총 18명으로 믿음이 신실하고 교회봉사에 모범적이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서울교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말씀 안에서 이 나라와 교회를 이끄는 기둥들이 되도록 많은 기도를 바랍니다.

이번 수여받는 장학생 명단은 아래와 같으며 선발된 모든 학생은 찬양예배 수여식에 참

석하여야 합니다.

**일반 및 순례장학금 6명**

장해라 소준 정서현 문영주 임하린 장유선

**브리스길라장학금 4명**

손주찬 전진석 배인혜 김가은

**송암장학금 3명**

장하늘 유성걸 정은지

**광림장학금 5명**

조용덕 최연주 노규미 삼손 키치 마르타 리마

## 1가정1선교사 후원

이동귀(1) 김재윤3(청소년) 박윤호(청소년) 강석범(청소년)

## Vision2030 후원자

김영정(1)

## 교사세미나 및 학부모기도회

- 3월 9일 (토)

오전 11시-오후 2시

- 웨스트민스터홀

- 강사:손달의 위임목사



## 2024년 봄 서울성경대학 및 열린프로그램

\* 성경대학

강좌	요일 및 시간	기간	강사/담당	장소
여호수아	화, 오전 10:30-12:00	3.5-4.23(8주)	현종필 목사	603
갈라디아서	목, 오전 10:30-12:00	3.7-4.25(8주)	김익환 목사	603

\* 열린 프로그램

강좌	요일 및 시간	기간	강사/담당	장소
살롬대학	목, 오전 10:30-13:30	3.7-5.9(10주)	박미라 전도사	101

## 2024년 2월 세례식 거행

서울교회 당회 주관으로 지난 2월 25일 주일 찬양예배 시 2024년 첫 번째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서울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마 28:18-20)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매해 짝수 달(격월) 셋째 주 주일 찬양예배 시에 세례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본 예식은 서울교회 3대 목표 중 하나인 "천국시민 양성"의 가시적 열매임과 동시에 본인에게는 신앙 성

장의 기회가 되므로 교구와 다락방 및 각 교회 학교에서는 세례 대상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교육 및 신청절차는 새가족 위원회 세례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번 세례자-입교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교자:**김주아 김지아 김하진 오선아  
임세연 임하람 임하울 최연수 한예승 계 9명

**세례자:**안현지 계 1명  
총 10명

##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오원준 김정현 구민우 최건 허정 이유찬  
김준현 김예준 김재용 이정환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김정균 소령

##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 첫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출 15:22-27)



손달익 위임목사

인생을 살면서 처음의 실패는 지속적인 상처와 두려움으로 남아서 인생살이의 큰 부담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시련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의 첫 순간에 큰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시며 '사탄아 물러가라'고 호통하시며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첫 시험을 이기신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시며 본격적인 전도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 처음으로 맞이했던 광야의 시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기적으로 건넌 후 사기충천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진입했습니다. 찬송 소리가 우렁차고 모든 도전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사흘이 지나면서 물을 구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행진을 시작하여 오아시스인 엘림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첫 시험을 잘 이겼고 그 여세를 몰아 오아시스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 1. 삶은 끝없는 문제의 현장

애굽에서 수백 년간 노예생활에 시달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망은 속히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 땅을 벗어나서 바로의 세력이 미치지 않는 자유로운 세계를 원했고 강제노동 현장의 포악한 관리들의 채찍질이 없는 평화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애굽만 벗어나면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넘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을 떠난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은 것은 홍해였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듯 기도하여 구사일생으로 홍해를 마른 땅을 걷듯이 건너 드디어 자유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격에 겨운 찬송을 불렀고 미리암을 선두로 여인들은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스스로의 구원을 자축했습니다.

그러나 겨우 사흘 만에 상황은 또 역전되었습니다. 물이 없는 현실에 직면하며 다시 고통에 찬 울부짖음이 들렸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불렀던 찬송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우성 소리가 광야에 메아리쳤습니다.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해 고생하다가 어찌어찌하여 물을 찾았지만 마시지 못할 쓴 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파라다이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오늘의 마라, 인생의 쓴 물 같은 일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생기는 법입니다. 그래서 흔히 고난의 보편성과 필연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단순히 죄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다양하고 고통의 원인들도 신비한 영역에 속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는 짐작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시에는 그 의미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난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부름 받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남아있을 제자들에게 결코 녹녹치 않을 세상살이를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고 세상에서

는 환난을 당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 2.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우리는 시험 앞에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첫째는 깊은 걱정, 수렁에 빠집니다. 물론 걱정 자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나 걱정의 수렁에 빠져드는 것은 인생을 더 어렵게 합니다. 둘째는 자포자기하고 체념합니다. 셋째는 분노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이 범주에 속합니다. 그들의 이런 원망과 책임전가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이었습니다. 물이 없어도 원망과 분노이며 양식이 없어도 지도자들의 책임을 추궁하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걱정, 도피, 분노 등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가능하기는 하나 어느 것도 문제의 극복이나 우리 삶에 궁극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방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그들의 모든 자구책이 소용없게 되었을 때 모든 사정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모세는 고통의 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고 했습니다.(25절) 이것은 백성들을 위해 무엇이든 하고자 했던 모세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고난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부름 받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 3. 희망을 버리지 말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는 물 샘 열둘과 종려나무 일흔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27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희망을 가지고 광야의 전진을 계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물 샘

열둘과 종려나무 일흔 그루가 있는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엄청난 시련의 풍파가 있었어도 가나안을 향한 전진을 멈추지 말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는 마라의 큰 시련이 있는가 하면 엘림의 은혜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엘림에서 만난 물 샘 열둘과 종려나무 일흔 그루의 숫자는 매우 상징적입니다. 7과 12는 모두 충만함을 뜻하는 완전수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쉬기에 충분한 오아시스임을 의미하는 상징수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삶의 시련과 풍파가 있을지라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의연한 자세가 필요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하고 삶의 여건은 더욱 팍팍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 자들의 것입니다. 마라의 시험은 광야의 첫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의 쓴물이 생수로 변하듯 광야의 모든 시련들도 하나님 은혜로 이길 수 있음을 가르치십니다. 광야 생활의 시험은 불가항력적 어려움이었지만 하나님은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문제 극복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평화롭게 하며 노래하게 만들며 만족과 감사를 누리게 만들겠습니까? 무엇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늘과 내일의 대책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움켜잡게 만들습니까? 무엇이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능력입니까? 누가 우리를 이 광야를 지나 건너편 가나안에 이르도록 도울 것입니까?

이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 예수님의 은혜뿐입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마라의 사건은, 광야에서의 살길은 오직 은혜뿐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입니다.

## 기쁜 마음으로 다시 시작



여민호 성도  
(1교구)

저는 모태 신앙인입니다. 교회에 다닌 시간이 내 나이만큼이나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생활의 일부 분이고 익숙하지만 말

그대로 일요일 하루만 교회에서 한 시간 예배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소위 선데이 크리스천의 생활을 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매일 새벽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주일예배는 물론 수요일예배를 포함 모든 예배에 참석하며 기도도 주

님의 응답이나 가르침을 갈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5주의 양육 과정을 시작하며 60년 가까이 교회에 다닌 나에게 이런 입문과정이 필요한지 하는 짧은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이 과정을 새로이 출석하는 교회에 잘 적응해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하는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였는데 금방 5주가 지나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과 교회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리라 다짐해 봅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서 자연스럽게 무속신앙과 불교를 신앙으로 가지고 있었다가 우연히 하나님을 믿게 되고 처음 교회를 다닌 곳에서 새신자 교육을 받을 때는 모든 것이 새롭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며 다른 세계가 존재하는구나하고 느꼈습니다.

몇 번의 이사로 인해 교회를 옮길 때 새신자 교육을 받았던 거 같습니다. 이번 서울교회 등록 후에 받은

새가족 교육은 간결하여 보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그 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중요한

## 신앙 점검의 시간

신앙의 점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처음 믿는 신앙인이 아니지만 새가족 교육에 집중하시고 진중하게 수료과정을 이끌어 주신 박미라 전도사님과 봉사하시는 새가족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양윤정 성도  
(1교구)

## 신앙에 대한 새로운 시간들



김현기 성도  
(3교구)

새가족 교육 5주 수업, 이 경험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새가족 교육을 통하여 신앙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더 깊은 신앙생활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신앙에 대한 새로운 시간

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가족 교육은 내면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깊이 있는 성경공부와 찬양을 통하여서는 제 신앙생활을 더욱 더 열정적이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혜와 영적생활 성경말씀을 따르는 신행일치로 더욱 의미 있는 삶의 질이 개선되기를 기도합니다.



새가족 부에서 공부하며 다 시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첫 주 묵상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더 굳건한 믿음 가지고

앞으로 서울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김부연 성도  
(3교구)

##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우예하 성도  
(1교구)

### 1. 영생을 얻기 이전의 나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가는 것에 두려움도, 거부감도 없었습니다.

대학교 동아리도 C.C.C를 통해 늘 교회는 친숙한 곳이었습니다. 선데이 크리스천이 바로 저였고 엄마를 따라 교회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나

면서 제 믿음생활에는 크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깊게 제 인생에 찾아와 주신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 2. 나는 이렇게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런 저런 개인사로 크게 힘들어할 때 매일 새벽기도 가서 울며 주님을 찾았지만 제 마음에 크게 평안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태복음 16:15-17, 이 말씀으로 마음의 평안과 힘을 찾았고 엄마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과 저 1:1 관계에서 말씀으로 또 한 번 만나 주셨습니다.

### 3. 영생을 얻은 이후의 변화된 나

삶이 펄펄하고 지칠 때 저에게

말씀으로 제 마음에 노크해 주시고 만나주셨던 그날 신명기 8장은 저를 늘 생각하게 만들어 주시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목적,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높이는 삶을 살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나약한 저는 매순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원죄의 습성으로 인해 안 하려고 노력하며, 나의 약점을 내어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수많은 설교 4영리도 다 감사하고 이번 새가족 교육을 받으며 또 한번 주님을 기억하고 우선순위를 잊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뿌리가 튼튼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이외 수료자



함영진 성도  
(7교구)

\* 2월 새가족부 수료자는 총 6명입니다. 각 선교회·전도회·교구는 협력하여 새가족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섬김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고령 성도 및 장기 결석 환자 성도 심방



손달익 위임목사님의 고령의 성도들과 장기 결석 중인 환자들 심방이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6-6 유명중 은퇴안수집사님, 8-3 정정희 은퇴권사님, 8-3 노인덕 은퇴권사님, 8-1 김동호 은퇴권사님 댁을 심방하였습니다. 심방을 원하시는 성도들은 교구 담당교역자나 박미라 전도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4 2월 세례식



### 2024 교육1국 겨울성경학교



## 한국전쟁과 기복신앙



6.25 전쟁

한국교회 신앙의 부정적인 모습으로 늘 지적되는 것이 지나치게 기복적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종교문화는 전통적으로 북방 계열의 샤머니즘에 강한 영향을 받는다는 지적도 있다. 모든 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 이 북방 샤머니즘 문화의 영향으로 기복적으로 변한다는 이야기이다. 북방 샤머니즘은 만주·몽골·시베리아에 널리 퍼져 있던 세계관을 반영하는데 공통적으로 하늘에 대한 숭배가 나타난다. 천신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곰과 결혼하고 단군을 낳으면서 우리 민족이 시작되었다거나, 고구려를 세운 주몽이 천신 해모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가 우리 민족문화의 샤머니즘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심지어 의학적으로 알려진 '동의보감'에도 부적의 글씨를 쓰기 위한 붉은색 물감을 만드는 주사(朱砂)를 “정신을 기르고 혼백을 편안하게 하는데, 오래 복용하면 천지신명과 통한다”라고 설명할 정도로 샤머니즘은 우리 문화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따라서 한국기독교가 외국의 기독교와 비교해 다소 기복적인 성격을 보인다면 그건 아주 이해하지 못할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한국기독교의 기복신앙은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교회가 십자가 없는 부활, 무조건적인 축복만을 원한다는 비판이 나온 지 오래다. 이런 기복적 신앙이 결정적으로 한국기독교에 널리 확산한 계기는 한국전쟁이었다. 한국전쟁은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민간인의 피해가 큰 비참한 전쟁이었다. 1951년 미국의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맥아더 장군이 “평생을 전쟁 속에서 보낸 본관과 같은 군인에게조차 이러한 비참함은 처음 이어서 무수한 시체를 보았을 때 구토하고 말았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전쟁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전쟁의 여파로 밀어닥치는 전염병과 가난, 붕괴된 가족 구조로 인해 버려지는 사람들 역시 큰 문제였다. 이런 문제들은 한국인 모두를 다만 생존을 위해 살아가게 만들었다.

그리고 예의와 체면, 충효 등의 건강하고

전통적인 가치관을 중시하는 한국의 유교적 전통문화는 전쟁으로 급속하게 무너졌다. 전쟁 후에 한국의 모습을 관찰한 미국인 로버트 올리버(Robert T. Oliver)는 ‘젊은이들이 노인들과 맞담배를 피우고 노인들의 의견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사회질서의 급격한 변동을 묘사했다. 이기주의와 물질주의가 한국 사회에 만연하게 퍼져갔고 올리버는 “한국의 옛 보수주의는 마치 망치로 막 두들겨 부숴버린 꽃병인 양 자취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전통 가치의 붕괴, 생존 욕구의 극대화, 이기주의와 물질주의의 만연 등은 한국사회 전체에 엄청난 변동을 가져왔고 이는 종교도 마찬가지였다. 그 결과의 하나가 한국기독교의 기복신앙 확산이었다.

여기에 한국의 참상을 돕기 위한 해외 원조가 대규모로 시작되었을 때 가장 큰 규모로 활발하게 한국을 지원한 민간단체들은 대부분 외국 교회와 기독교 단체였다. 이 40여 개에 달하는 기독교 민간 구호단체들은 한국교회에 다량의 구호금품을 보내거나 직접 내한하여 활동하였고 한국인들은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구호단체로 인식하였다. 물론 이는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고자 기독교인이 되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물질적 도움을 곧 하나님의 축복으로 설교하고 이해하는 경향이 심화한 것은 문제였다.

1960년대에도 전쟁의 여파는 그대로 한국인의 삶을 움아매고 있었다. 가난에 찌든, 그리고 그 가난을 어떻게든 벗어나기 위해 고향인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몰려든 외로운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었다. 이때 기복신앙은 완전히 한국교회의 중심 메시지가 되었다. 1980년대까지 부흥회, 기도원, 그리고 일반적인 예배에서 “위로와 격려, 축복의 약속과 헌신의 요구, 개인의 행복 추구, 신비체험 간증, 길흉화복의 예언”을 이야기하는 설교와 기도가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몰려들었고, 교회는 급성장했다. 기독교인 수는 1950년의 60여만 명에서 1985

년 650여만 명으로 약 11배 성장하였다. ‘역사상 유래없는 성장’이라는 한국교회의 소개 문구는 이 시기의 한국교회를 일컫는 것이다.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 기쁜 일이다. 하지만 그 대가로 교회가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일이 잘 풀리며, 건강해지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간다’는 그릇된 무속성 기복신앙이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된 것은 너무 큰 비용이었다. 이런 유행처럼 번져나간 기복신앙은 전국의 각지에 기도원 설립의 유행으로 이어졌고 교회의 통제와 지도를 거부하는 기도운동과 신앙사조가 번창하면서 수많은 이단 시비를 낳기도 했다. 이단으로 논란이 되었던 많은 신앙운동들이 근본적으로 무속성에 바탕하였고 기복주의를 매개로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일들에서 파생하여 여러 형태의 가정 제단 운동, 기도모임 등의 그릇된 성령운동들이 교회를 혼란하게 하기도 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은총 내리심을 부인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다. 그럼에도 기복신앙을 문제 삼는 것은 물질적이며 현세적 성공을 은총의 표준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뜻인 진실과 정의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지 않거나 이기심의 충족만을 추구하여 교회와 신앙의 공공성을 외면하거나 인류사회의 공동선의 성취에 기여하지 않으면 이는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한국교회가 샤머니즘적 신비를 기독교 신비로 착각한 것처럼 세속적이며 이기적 번영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등식화시킨 것은 큰 오류였다. 이론상으로 그리 주장하지 않았지만 실제적 물질주의에 동화되고 있었으면 이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 공동체에서 이탈하여 탐욕적인 바알의 길을 걷는 것과 다름이 없다.

**결혼합니다**



- 3교구  
전용천 집사·김민아 양  
(전광영 은퇴안수집사·김인숙 은퇴권사 삼남)  
3월 9일(토) 오후 3시 라움 체임버홀

**연주회**



- 4교구  
박찬호 성도(전주시립교향악단 악장, 박광서 은퇴안수집사·백경화 권사 장남)  
바이올린 리사이틀 3월 7일(목)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전주)

**식사 제공**



- 9교구  
박동우 안수집사, 백승경 권사의 자녀 일동  
유아세례(연다운, 연준모) 및 회갑(백승경 권사) 은혜 감사

**70인전도대 3월 전도 일정**

주일	자원자(오후 1시-2시)	선교회(오후 1시-2시)	수	전도회(오후 1시-2시)
3.3	자원자	빌립 안드레, 베드로	3.6	도르가, 루디아, 뱌뵈
3.10	자원자	바울, 엘리야	3.13	마리아
3.17	자원자	모세	3.20	한나, 에스더(오후 2시-3시)
3.24	자원자	이삭	3.27	리브가
3.31	자원자	스데반회		

**2024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맥체인 성경통독			
3월4일	월	신 5-7	출16	눅19	욥34	고후4
3월5일	화	신 8-11	출17	눅20	욥35	고후5
3월6일	수	신 12-14	출18	눅21	욥36	고후6
3월7일	목	신 15-18	출19	눅22	욥37	고후7
3월8일	금	신 19-22	출20	눅23	욥38	고후8
3월9일	토	신 23-26	출21	눅24	욥39	고후9
3월10일	주일	신 27-28	출22	요1	욥40	고후10

성경일독 진도표와 구역과 신약, 시편을 구속사적으로 연결하여 1년에 구역 1독, 신약과 시편 2독을 하는 맥체인방식 성경읽기표를 함께 게재합니다.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 사순절 셋째 주간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걸으신 순종과 희생, 섬김과 사랑의 길을 걷게 하소서.
- 제4대 담임목사 청빙 과정이 하나님 주권하에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선교지와 놓여 촌 후원 교회, 비전2030군선교지에 성령의 위로와 역사로 함께 하소서.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재보궐선거 과정에 참된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 보혈의 생명의 능력이 전세계 고통과 죽음이 있는 곳마다 임하게 하소서.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 부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최중국
- ◇ 전도사 박미라
- ◇ 준전임전도사 손주찬 전진석
- ◇ 교육전도사 배인혜 김가은
- ◇ 협동목사 양정호
- ◇ 시무장로 최형열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 서은석 김광태 노제현 김혜연
-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백도환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웨스트민스터홀
	2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민스터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민스터홀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30분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8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2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오후 2시	609호

**■ 서울교회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